

2011.06.07 미래정책연구실

## □ 미국, 식품가격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

## 1. Bloomberg(2011.05.25) 주요 내용

## &lt;미국 식품물가 상승 가속&gt;

○ 스탠다드앤푸어스(The Standard & Poor's) GSCI 농산물지수(Agriculture Index)의 계측결과에 따르면, 식료품 8개 품목 중 7개는 기상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함.

※ 그 밖에 달러 약세에 따른 수출증가, 재고부족 등도 식품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임.

- 옥수수의 선물가격은 작년대비 98% 상승했고, 밀(67%), 원당(44%), 쌀(25%) 가격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냄.

- 식료품점과 레스토랑음식 가격은 4월까지 지난 4개월간 2.4% 상승했으며, 이는 1990년 이래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냄.

○ 한편, 학계 및 식품업계의 전문가들은 최근의 식품가격 상승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.

- 아이오와주립대 교수인 채드 하트(Chad E. Hart)는 소매물가가 올해 USDA의 전망치(3~4% 상승)보다 훨씬 더 오를 것이라고 밝힘.

- ConAgra Foods Inc의 전 수석경제학자인 빌 램(Bill Lapp)은 기업들이 금년 말까지 높아지고 있는 원가 인상을 가격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함. 또한 "식료품 및 유가 상승으로 미국 소비자에게는 힘든 시기가 될 것"이라면서 현재 식품 가격 상승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나타냄.

## &lt;식품업체,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식품가격 인상&gt;

○ 미국 식품물가 인플레이션이 곡물, 육류, 유제품, 에너지 비용을 더 높아지게 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에 따라 네슬레, 맥도널드, 홀푸드마켓 등 세계적인 식품

기업들은 식품가격을 인상하고 있음.

-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체인 맥도널드의 피터 벤센(Peter Bensen)은 "재료 가격이 상승해 미국 내 햄버거 세트 가격을 3월부터 1% 올렸다"면서 "올해 미국과 유럽의 식품가격이 4.5%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"고 밝힘.

- 미국의 최대 유기농 식자재 업체인 홀푸드마켓의 월터 롭(Walter Robb) 공동 CEO는 "벤더들에게 올해 식료품가격을 올렸으며, 우리는 지금 당장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"고 언급함.

- 세계 최대 식품회사인 네슬레의 CEO인 폴 벌키(Paul Bulcke)는 "향후 식료품 물가상승이 더 확대될 것이며, 식품회사들은 높은 재료 비용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다른 부문에서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"고 언급함.

- 미국 커피유통업체인 스머커(JM Smucker)는 금년 커피콩 가격이 2배 가량 올라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커피 브랜드인 폴저스커피(Folgers coffee) 가격을 11% 인상할 것이라고 밝힘.

## &lt;식품 가격 상승은 기상악화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진에 기인&gt;

○ 세계 최대 농업수출국인 미국의 식품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유럽, 중국, 미국 남부의 대평원 지역의 가뭄으로 수확량이 감소했기 때문임.

- 더욱이 최근 미시시피강의 홍수로 인해 옥수수, 콩, 쌀 등 농작물 파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

○ FAO는 세계 식품가격이 4월을 포함해 지난 10개월 중 9개월 동안 가격이 올랐으며 지난 2월에는 최고가에 근접했다고 밝힘. 또한 농산물의 수급불일치로 인해 가격변동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힘.

○ 한편, 인플레이션 조짐으로 인해 중국, 유럽 등을 포함해 24개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리고 있음.

\*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